



제목	Turkey and the Rescue of European Jews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Routledge
발행일	2014. 12. 19.
저자	I. Izzet Bahar
출판도시	Abingdon
페이지수	320
ISBN 또는 ISSN	978-1138801257

**내용 요약**

『터키와 유럽 유대인 구출』은 히틀러 시대에 유럽 유대인에 관한 터키의 정책을 설명한 책이다. 이 책은 1990년대 이후 터키 사회에서 홍보하고 있는 ‘유대인 희생자들의 보호자’라는 이미지가 역사적으로 증명되는지를 밝힌 글이다. 저자 바하르는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터키 정부가 독일 유대인 학자들을 모집한 것, 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의 지배를 받던 프랑스에서 터키 출신 유대인의 운명, 터키를 거쳐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간 유대인 피난민에게 터키가 접근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 사건들은 문학이나 언론에서 터키 정부의 인도주의적인 정책의 증거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나치 정권과 2차 세계대전 동안 유대인에 대한 터키 관료들의 동정적인 행동의 사례로 거론되었다.

저자는 유대인 보호자로서의 터키의 이미지는 만들어진 것이고, 왜곡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아르츠(Bülent Arınç) 부총리가 “터키에는 반유대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말은 매력적이지만 진실이 아니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터키공화국이 설립된 1920년대 초반 터키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인구는 20만 명에 달했으나 1935년 그 수는 78,000명으로 줄어들었고, 현재는 15,000명에 불과하다. 저자는 남아 있는 유대인들도 비이슬람교도에게 부여하는 징벌적 부유세와 민족주의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터키 내에 존재하는 반유대주의의 징후를 강조하였다.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다. 1부는 1933-1952년 터키에 있는 독일 출신 유대인 학자들에 대한 정부의 접근이 인도주의적 관심인지, 국가적 필요 때문인지를 논하였다. 2부는 프랑스에 있는 터키 출신의 유대인들의 상황과 1990년 이후의 증언들을 담고 있다. 3부는 유대인 피난민 문제를 다루고 있다.